월동 꿀벌 소실 · 폐사 재발 막는다

농진청, 조사 · 현장 대응 · 안정적 양봉 관리기술 개발 등 추진키로

올 겨울 발생한 꿀벌 집단(봉군) 소실과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와 꽃가루매개 꿀벌 구입이 지연되어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은 양봉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을 통해 안정적 양봉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대응 및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월동봉군 소실 조사 ▲현장 대응단 운영 ▲안정적 양봉 관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번 꿀벌 집단의 소실과 폐사는 봄철(2020~2021년) 이상기상으로 인한 꿀벌 활동 부족, 월동기(2021.11.~12.) 밀원식물의 조기 개화로 꿀벌의 이른 채집 활동, 꿀벌 해충(응애) 방제를 위한 약제 저항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꿀벌 소실 원인 구명을 위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4월부터 10월까지 격월로 현장 점검과 추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 관련 부서와 전국 도 농업기술원, 과채류 주산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며 현장지원반, 꿀벌대응반, 농작물 대응반, 연구개발반 4개 반으로 구성했다.

우선 현장지원반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연계해 양봉 농가·시설원예 농가와 관계관을 대상으로 꿀벌 응애 방제, 시설원예 작물별 화분매개벌 활용과 화분매개곤충 이용 안내에 대해 교육·홍보한다.

또한 꿀벌대응반은 꿀벌 증식을 위한 해충방제와 화분매개벌의 수정향상 기술 등 안정관리 기술을 제공한다. 아울러 농작물대응반은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적 열매 달림(착과)을 위한 최적의 환경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대체 수정기술을 발굴해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반은 꿀벌 응애 친환경방제 기술 연구·보급, 봉군 관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활용 기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은 11일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관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양봉산업 안정화 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영향 분석과 종합적 관리기술 개발 방향, 봄철 화분매개벌 적용을 위한 환경조성과 꿀벌 대체 수정 기술 발굴 등을 논의했다.

농진청 농촌지원국 서효원 국장은 "월동봉군 소실폐사의 원인 구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보급을 추진해 양봉 농가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지자체, 민간단체와 연계해 화분매개벌의 안정 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매실 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제때 방제해야 피해 감소

이달 중순부터 5월 초 매실 열매 지름 1㎝되는 시기 살포

전북 순창 등 남부지역 매실 주산지에서는 매년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로 열매가 떨어져 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 매실 농가의 경제적 큰 손실을 막기위해 농촌진흥청은 올해 복숭아씨살이좀벌의 알 낳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제때 방제로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 매실

11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복숭아씨살이좀벌은 매실, 복숭아, 살구, 자두 같은 핵과류에서 발생하는 해충으로, 4월 초부터 발생해 매실 열매 속에 알을 낳은 후, 약 15일 뒤 부화한 애벌레(유충)는 매실 씨방을 먹고 자란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매실은 껍질이 썩어 마르거나 수확 전에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특히 애벌레는 씨앗 속에서 해를 가해 약제를 뿌려도 벌레 몸에 직접 닿지 않아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숭아씨살이좀벌이 알을 낳을 때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어른벌레가 왕성하게 산란하는 때는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이며 매실 열매 지름이 1㎝ 정도 되는 시기로, 이 기간에 전용 살충제를 1주 간격으로 2~3회 뿌려 알을 낳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어른벌레는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미하기 때문에 정오 무렵에 살충제를 뿌리면 벌레 몸에 약제가 잘 묻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피해로 인해 땅에 떨어진 열매는 물론 나무에 붙어있는 것도 수시로 수거해 비눗물에 담가 씨 속에 있는 애벌레를 방제해야 한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동환 과장은 "복숭아씨살이좀벌 애벌레는 씨앗 속에서 살아가는 생태 특성상 최적의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열매 생육 상태를 관찰해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숭아씨 살이좀벌 방제 약제의 자세한 정보는 농진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최대희 기자

인재육성 프로젝트 'WM 살롱' 세미나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WM살롱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종합자산관리를 이끌어갈 차세대 WM(Wealth Management·자산관리사)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지식을 함양하고, 종합자산관리의 중요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해 구성된 소규모 학습모임으로 매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는 '경제 용어 정리' 및 '맞춤형 투자 루틴'을 주제로 금융트렌드를 배우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경민 본부장은 "자산관리는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인재육성을 통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농협의 종합자산관리를 이끌어갈 차세대 WM(자산관리사)을 대상으로 'WM 살롱 세미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농협은행 전북본부 제공〉

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활성화

전북은행, 돼지카드 충전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지급되는 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활성화를 위해 '돼지카드 충전 이벤트'를 시행한다.

11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 행사는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 기존 소지고객 및 신규 발급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전주시 재난지원금을 돼지카드로 충전한 고객 중 총 1,004명을 추첨해 1등은 3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2등은 100만원 상당의 에어드레서, 3등에게는 골드바 3.75g(1돈)을 증정하며 이외 964명에게는 돼지카드 충전금 5,000원을 증정한다.

또한 전주시 재난지원금 충전 시 추첨권 1개에 더불어 전북은행 계좌를 충전 계좌로 연결한 고객은 추가로 추첨권 1개가 더 지급되며, 해당 경품은 다음달 4일에 지급된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지역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찬반 토론

LX청렴확산협의체 비대면 회의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구축·운영하는 '제5회 청렴확산협의체'의 비대면 회의가 지난 8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직장인 익명 커뮤티니 앱 블라인드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블라인드는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 3월 기준 가입자 수는 4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내부 고발의 창구라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익명 뒤에 과도한 험담·조롱·근거 없는 글에 대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반론이 팽팽했다. 또한 소수의견이 회사 전체의 의견이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잘못 비칠 공산이 크고 기밀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상근 LX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극소수 직원이 제기한 문제가 전체 의견인양 과장되는 점이 큰 문제"라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내 익명게시판으로 개설해서 익명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소통방식을 바꾸는 프로그램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정규 LX완주지사 팀장은 "블라인드의 핵심은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말하고 기업이 이를 잘 듣게 하는 데 있었다"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 봄철 방역 강화

정부, 야생멧돼지 집중 관리 · 농장 선제 차단방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ASF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 추진은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장 ASF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ASF에 감염된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충주, 보은 발생 후, 경북 상주, 울진, 문경에서도 감염된 폐사체가 지속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양돈단지(경기남부·충남 등)가 있는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방역강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발생지역도 언제든지 ASF가 발생 위험이 있어 전국 위험권에 따른 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또한 봄철 출산기(4~5월) 이후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점으로, 중수본은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022.4~12)'을 마련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한 뒤 야생멧돼지 ASF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집중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이내 ASF 발생지역 및 인근 확산우려지역을 지정하고,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시·군)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이외에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 상설포획단(10명 이상/시·군)을 구성하고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 실시해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해서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의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함에 따라 먹이터 조성,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과학적 포획방법 동원해 전국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 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해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해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하며,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 원으로 통일(기존 양성 20만원, 음성 10만원), 출산기(3~5월) 성체(60kg이상)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상향(20→30만원)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한다. 추가로 기존 설치된 차단울타리의 차단기능이 지속 유지되도록 3월 28일부터 2주간 해빙기 환경부(지방청, 질병원, 생태원 등)·지자체 합동 일제점검도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설치를 어려워하는 시설(내부울타리·전실 등)에 대해 농장 여건별 설치 요령(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농가들의 신속한 설치를 독려하는 등 전국 ASF 확산 상황에 대비해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하기 위한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도 실시하며, 전국 양돈농장을 중요도·취약요인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세분화해 점검을 실시한다.

세부점검으로는 그 동안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21호 중 17호가 모돈에서 발생한 점, 양돈농장 시설 공사 중 발생(화천)한 사례를 감안해 방역시설 설치 시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경작 활동(텃밭 포함)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를 병행하고,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ASF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한편 전국 한돈협회 지부장 및 양돈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등을 통해 양돈조합 또는 회원 농가 대상 ASF 전문가 교육 및 영상자료를 제작해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대희 기자

글로벌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

농식품부 · aT, HMR · 밀키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총 194건 · 600만 달러 수출 상담실적 거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7~8일 'HMR·밀키트(가정간편식) 제품 등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총 194건, 6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담회에는 국내 수출업체 66개사와 중국·미국·프랑스·태국 등에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12개국 주요 바이어 60개사가 참가해 비대면 화상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가정간편식 시장에 초점을 맞춰 'HMR·밀키트 제품'을 테마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으며,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콤한 떡볶이, 김치찌개 등 다양한 밀키트 제품과 직접 조리에 필요한 소스류, 시즈닝 제품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진 상하이국제식품박람회(SIAL CHINA)에 참가할 예정이던 국내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 바이어들과 사전 매칭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 결과 1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어, 추후 재개될 박람회 현장에서의 수출계약 성사를 기대하게 했다.

이날 상담회에 참가한 중국바이어 S사는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간편하게 K-Food를 즐길 수 있는 HMR·밀키트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늘고 있어, 관련 품목을 수입하고자 상담회에 참가했다"며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한자리에서 다양한 수출업체와 상담이 가능했고, 현재 운영 중인 O2O몰에도 추가 입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해외 마케팅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나, 부족한 여건 속에서 온라인 비대면 상담회를 통해 수요를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수출상담을 지속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상담회 재개도 검토하는 등 우리 수출업체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희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